

# 임실군, 애플망고 수확 한창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시범 사업 추진… 새로운 농가 소득원 자리매김

임실군이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눈이 많고 기온이 낮아 아열대 작물 재배가 쉽지 않은 지역 여건 속에서도 임실군은 끊임없는 연구와 시도를 통해 애플망고 재배에 성공했다.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애플망고는 당도가 높고 특유의 향이 풍부하며 과육이 부드러워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앞장서 지난 2021년부터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단지 3,996㎡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개 농가가 애플망고를 1

개 농가가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 기술 정립을 위해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목에 대한 작물 생육 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초기 시설 투자비, 겨울철 난방비 등 경제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아열대 과수의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재배 기술 전파를 통해 고품질 아열대 과수 생산에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농가 직거래와 온라인판매, 지역축제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손이 덜 가고 3킬로그램 한 상자가 12만 원을 넘을 정도로 수익성도 좋은 편으로 알려졌다.

경영비의 절반이 난방에 들 정도로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또한, 국내 생산으로 수확 후 이송과 보관 기간이 짧아졌고, 안전한 재배라는 소비자 믿음이 더해져 시장에서의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의 애플망고 수확과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은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창출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재배 기술 확립과 꾸준한 아열대 과수 재배 가능성 검토를 통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 체계적 재택 의료 서비스 지원 논의

남원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간담회 가져

남원시는 25일 오후 2시,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상담실에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원시 통합돌봄과,

남원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관계자들이 상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병



남원시는 25일 오후 2시,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상담실에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 남원시-호원대, 드론 전문인재 양성 협약

남원시가 산업전문대학인 호원대학교와 손잡고 드론 전문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는 지난 3월 호원대학교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마치고 4월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호원대 RISE 사업은 2027년 남원시에 호원대 4년제 학부과정 개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남

원시의 드론레저 스포츠·드론레이싱 산업 육성 비전과 맞물려, 수료생들이 영상·콘텐츠, 방제, 드론 스포츠, 창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컬처 드론 과정은 현재 1기 교육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 중이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25일, 농가, 기업,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용 곤충 곤충 산업화의 현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식용 곤충 산업의 현황과 다양한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 남원시, 곤충산업 세미나 개최

‘식용 곤충 산업화의 현주소와 미래’ 주제로 미래 전략 공유

남원시는 25일, 농가, 기업,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용 곤충 산업화의 현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식용 곤충 산업의 현황과 다양한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에 따라 남원시와 원광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남원 곤충 이노베이션 리빙랩' 과제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 강연은 국내 식용 곤충 산업을 선도하는 (주)한미양행 김중광 소장이 곤충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센터 석영식 센터장이 곤충, 데이터 기반 및 맞춤형 식품 소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석영식 센터장은 강원 자치도가 2023년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지로 선정된 이후, AI 기반 표준화 대량 생산 플랫폼 구축, 이력 관리 시스템 등 산업과 기반을 마련 중이며,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남원시와 원광대학교가 공동

추진하는 '남원 곤충 이노베이션 리빙랩' 과제는 농가,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곤충산업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곤충산업 거점 단지 구축 계획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원시는 2024년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곤충산업을 식품·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 말 완공, 2028년부터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식용 곤충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 개발과 상용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수요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곤충 식품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곤충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며,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발효관광재단, 가족형 여름축제 '뽕순락' 성료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지난 23일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개최한 '뽕마들의 순창 오라실' (이하 '뽕순락')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위를 날려주는 '뽕충놀이오라실'과 아름다운 노을 아래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선셋 돛자리 영화관'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인기 캐릭터 '엄마까투리'와의 만남, 다양한 디지털 체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미디어 버스' 등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아이들 마음에 영화를 담고 싶을 때를 위해 VR·AR 콘텐츠, 미디어 장비 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접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순창=이왕원 기자

## 지역 소식 통

### 순창군, 조생종 벼 '해담벼' 첫 수확

순창군은 지난 22일 풍산면 도치마을에서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박동민 씨(44)로, 지난 4월 8일 조생종 '해담벼'를 이앙한 이후 약 4개월간 정성껏 재배해 첫 수확을 마쳤다.

이번에 수확한 해담벼는 내병성과 내재해성이 뛰어나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고, 밥맛이 우수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종이다. 또한 조생종 특성상 조기 출하가 가능해 추석 전 햅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벼농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박 씨는 이른 모내기과 짧은 재배기간을 장점으로 하는 조생벼 재배를 선택했다. 조생종 벼는 농번기 노동력을 분산시키고, 햅쌀 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지역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시보건소,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거밀집 지역, 다중이용시설, 시가지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역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독성, 저자극 'U등급' 약품으로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를 병행하여 하절기 집중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19일 최근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한 열록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단위 경보를 발령했으며,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로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이 주요 위험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해외여행 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후, 1~4주 이내 오한이나 고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말라리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